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편집부의 말

신민철 : 이번 호는 많은 것이 변화한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을 이쁘게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으니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재웅 :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던 만큼 더 활짝 피어난 이번 학기, 우리 약학과와 소식을 이번 차팜인 9호에 담아보았으니 이쁘게 봐주세요~ (ps. 이번호 제작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또한 올립니다.)

이승연 : 이번 여름호에서는 차약이들의 알차고 즐거운 생활을 담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현지 :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차약이들의 열정을 담은 여름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차팜인이 전하는 약학과 여러분의 소식,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정 : 이번 여름호와 더불어 앞으로도 다채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정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약이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보람했습니다. 차팜인과 함께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소연 : 차약이들의 소식을 꼭꼭 눌러 재밌게 담아봤습니다!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식 :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여름호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

채지은 : 앞으로도 차약이의 학교생활을 알차게 담아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혁 : 앞으로 있을 다양한 활동들에 차약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소식들이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

안지우 : 무더운 여름날에서 날씨가 슬슬 풀릴 무렵, 차팜인이 다채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김동현 : 이번 여름호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 선 :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여름호입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원재웅 (약학과 18),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신민철 (약학과 18), 김민정 (약학과 19), 최우혁 (약학과 19), 신 선 (약학과 22)

취재팀

이승연 (약학과 18), 채지은 (약학과 19), 안지우 (약학과 20)

원재웅 (약학과 18), 이소연 (약학과 19), 김동현 (약학과 22)

이현지 (약학과 18), 김소정 (약학과 19), 임현식 (약학과 19)

발행회차

2022년 9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인터뷰] 이기영 교수님

03 [인터뷰] 최보운 교수님

04 [취재] 5학년 대면 실습 후기

05 [취재] 약학과 학우들의 방학나기

06 팜파라치

07 [취재] 유럽 여행기

08 임상기술센터 개소식

09 차약 앙케이트

10 차밍워크 / 차친프

11 송우미식회

12 익명의 편지

12 차팜인 에세이

차팜人이 만난사람

이기영 · 최보운 신임교수님

22학년도 올해는 새로운 신입생들과 함께 새로운 교수 두 명이 부임하였다. 아직 수업으로 만나보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신임 교수들의 이야기를 차팜인에서 담아보았다.

우리 약학과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이기영’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

1. 올해 새로 부임하신 만큼,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약학대학 분석화학전공 교수로 부임한 이기영 교수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학부 졸업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에서 구조 분석화학 (Structural Analytical Pharmacy)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Princess Margaret Cancer Research Center (PMCRT)에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해 발암단백질의 구조분석 플랫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진로/인생 상담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분석화학/약품분석학도 가능합니다.^^)

2. 차의과학대학교의 신임 교수님이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한학기 정도 학생들과 대면으로 분석화학 수업을 진행하고 보니, 제가 예전에 약학대학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 열심히 따라와 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3. 이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면, 구조 기반 신약개발 법 (Structure-Based Drug Development) 입니다. 질병과 상관성이 높은 세포 내 단백질 단독 또는 복합체에 대한 3차원 구조와 생화학적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하는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으로 약물 후보물질을 선별하던 전통적 신약개발 법과는 차별화된 방법이고, 생물 정보학을 기반으로 알게 된 질병 유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적, 효율적 신약개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만, 교수님께서도 학부생, 대학원생이셨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교수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평범했던 대학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공연동아리도 했었고,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학원 학위과정 시절에 같은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놀러도 다니고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5. 교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의 연구 분야,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미지의 물질이든 3차원 구조 정보를 알아내면 이 물질에 대해 적어도 반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질병 유발 단백질이 갖는 특정 3차원 구조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발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 맞는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 분석화학을 기반한 약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매우 흥미롭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팜人이 만난 사람

6. 현재 차대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떻게 진로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배 약사님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육자이면서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현재 많은 약학대학 졸업생들이 현직 약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로 선택 시 자신의 적성/자기계발 측면에는 마음에 들지만 보상이 낮을 수 있고, 또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직업은 존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라는 현실적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무 이상만 쫓다가 결혼시기를 미루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7.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학대학생들은 약의 전문가로서 제약업, 보건사회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는 약학도들의 자세와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약학 교육자, 연구자, 현직/공직 약사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서 오늘 하루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약학대학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활 동안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세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대학생활은 인생 전체로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 기억은 강렬합니다.

또 다른 우리의 새 가족, '최보윤' 교수님



최보윤 교수님

1. 올해 새로 부임하신 만큼,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는 최보윤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임상약학 연구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약사 업무를,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약물치료학 교육을 했어요. 현재 미국 약물치료학 전문약사(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BCPS)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2. 차의과학대학교의 신임 교수님이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임이 결정되고부터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 싶다는 포부에 강의시간에 대한 기대도 컸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재미와 보람을 알려줄 수 있을까도 설레는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차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약사 업무를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과 즐겁게 실습하는 모습도 기쁜 마음으로 상상했어요. 차의과학대학교에 와서 능력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만나고 나니 저의 이러한 소망을 더욱 빨리 실현시키고 싶어졌습니다.

3. 이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임상약학 연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우선 보험 청구자료와 같은 빅데이터(big data)나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등의 실사용자료(real-world data, RWD)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보험 청구자료를 전수분석해서 TNF inhibitor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에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장기 안전성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요. 환자 개개인의 혈중 약물 농도를 예측하고 조절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약물계량학(Pharmacometrics) 연구,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유전형이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busulfan 투여 후의 혈중 약물 농도를

차담人이 만난 사람

측정해서, GSTA1 유전형 등의 환자 특성에 따라 개인별 busulfan 혈중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어요. 환자 중심 약물치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pharmaceutical care)를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 중입니다. 약물치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임상현장에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미충족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임상 자료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임상적 난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4.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만, 교수님께서도 학부생, 대학원생이셨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교수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학생 시절 저는 이런 저런 것에 관심이 많아 바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해요. 동아리 활동, 과외, 다양한 아르바이트,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교제, 학과 공부, 심지어 가끔씩의 일탈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고 남들만큼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늘 분주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학생 때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들, 예를 들면 오지 여행이라든지 어학연수, 전공과 무관한 버킷리스트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수업 중에 학부 졸업 이후 병원에서 임상약사 업무를 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병원약사 업무와 대학원 수학을 병행하셨고, 교수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바로 약사로서 일 하기에는 나의 약학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대학원 수학 기간 중에 연구와 교육 업무 외에, 해당 대학과 MOU를 맺은 대학병원의 병동에서 임상약사 업무 또한 개발하고 수행하게 되었어요. 병동 업무를 하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사들의 임상업무를 한국에서도 널리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대학원 수학 중에도 틈틈이 지역약국, 병원 약제부, 언론사 등에서 일을 해보았고, 졸업 전에 결혼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다른 일을 경험할수록 나에게 가장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일은 임상 연구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랜 기간 고민하고 다소 뒤늦게 결정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한 후에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 현재 차대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떻게 진로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배 약사님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몇 년 전까지도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어요. 약대생은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지가 많은만큼 진로 고민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직업'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답을 찾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 더 쉬운지, 어려운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의 경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는 잘 몰랐어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은 확실했고, 공부를 하기 위한 학위 과정은 어려운 길이지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바람을 이룰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접적인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6학년이 되면 실무실습을 할 수 있지만 저학년 때부터 연구실, 약국, 제약회사 등에 연락해서 관심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력을 쌓으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욕심 내고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은 진로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중차대한 시기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인생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보태고 싶은 마음이에요. 차의과학대학교에 와보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수님들과 학교, 선배들,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업적인 성과는 물론 개인적인 행복 또한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상화된 실습, 5학년 제약공장 대면 실습 후기



"제약 산업 현장에서 약사의 직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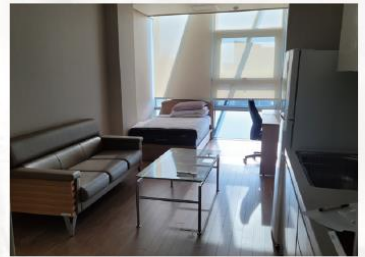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건물 외부 모습

올해 들어 COVID 19 팬데믹 사태가 다소 잠잠해진 이후 교내외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실습의 정상화는 많은 학우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일이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5학년 학우들은 이번 하계 방학에 대면으로 제약공장 실습을 하였다. 실습지는 대구와 서울 두 곳으로 나누어졌으며, 대구 실습에 11명, 서울 실습에 30명이 배정되었다. 대구 지역 실습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였고,

대면 수업의 경우 대구 첨단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실습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제약 공장에서의 대면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 폭우로 인해 서울대학교 교내 전산 업무가 마비되면서 실습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대면 실습을 기다렸던 학우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 지역 제약공장 실습이 시작된 첫날, 오전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실습 내용을 확인하였다. 차 의과학대학교 외에도 인제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다른 지역 학교도 함께 참여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GDP 문서작성 규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 품질을 시험적 및 문서적으로 검증/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날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며 GMP 일반 교육, 의약품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강의 이후 관련 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심사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및 관련 근거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제출하였다.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

대면 실습은 셋째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 실습을 지망한 5학년 학우 11명은 대면 실습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대구 첨단복합단지 내의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였다.

게스트하우스 객실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누어져 있었고, 깔끔한 외관에 침대, 책상, 옷장, TV, 소파 등의 가구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많은 학우들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게스트하우스가 실습 교육장 및 세탁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2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대면 실습 주제는 '주사제 생산'으로, 오전에는 주사제의 품질 특성 및 제조 방법을 강의에서 배우고 오후부터 주사제 생산 과정을 조원들끼리 직접 한 과정씩 맡아 실습하였다.



▲대면 실습 후 단체사진

대구 실습 3일 차, 첫 대면 실습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대면 실습의 주제는 '품질관리'였다. 개요 및 시험 이론 강의를 오전에 수강한 후, 오후 시간에는 실습장에서 침복아세카정 함량시험을 진행했다. 실험을 통해 침복아세카정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 함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대면 실습 날, 오전 시간에는 '품질개발 이론 및 미생물 이론'을 배웠다. 오후에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며 제조용수 총 호기성 균수 시험법을 통해 제조 용수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강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았다.

세 번째 대면 실습 날에는 합성 실습에 관련된 이론을 간단히 배우고, 곧바로 실습장에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차 의과학대학교 외 인제대학교, 우석대학교도 실습에 참여하여 총 4개 조로 나누어 실습했다. 실험 과정에 따라 아스피린 합성을 진행하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합성 수율을 확인하였다.

대구 실습의 마지막 대면 실습은 '고형제 생산 실습'이었다. 고형제를 생산하는 실습 공장을 견학하며 직접 체험해 보고 각 공정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익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실습이 끝나면 작성하였던 보고서 취합하여 제출하며 실습을 마무리했다.

이번 하계 방학 제약공장 실습을 하며 5학년 1학기에 제제학 강의를 들으며 배웠던 제약 공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서만 배운 내용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약사로서 제약공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동기 친구들과 다 같이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였기에 실습이 끝나고 난 저녁에 뒤풀이를 하며 놀 수 있어서 더욱 즐겁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약학과 학우들의 방학 나기

이번 2022년도 1학기는 2년간 긴 코로나 이후 전면 대면이 최초로 시작된 학기입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약학과 학우들의 다양한 방학 생활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제약마케팅 학회 PPL에서 활동중인 이진우 학우



PPL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5학년 이진우 학우를 소개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5학년 이진우입니다. 수도권 약대생 제약 마케팅 전략학회(PPL)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PPL 동아리에서 활동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2: Pharmaceutica l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의 약자로 제약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5,6학년 위주의 약대생이 모여 만든 “수도권 약대생 제약 마케팅 전략학회”입니다. 2014년 결성된 이후 현재

8기 12명, 9기 12명의 학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PPL은 단순히 마케팅 이론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강연, 북세션 및 기업 연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제약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PPL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로 계획과 관련이 있나요?

A3: PPL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약대생의 다양한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병원, 회사 모두 큰 호불호가 없었던 저는 하나씩 경험해 보고 체계 맞지 않으면 가지치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 중 PPL은 약대생 수준에서 제약산업과 가장 긴밀히 접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PPL에서의 활동 중 가장 의미있었고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4: PPL은 전국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일 년에 한 번 제약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산업 내 다양한 직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한국노바티스 정재홍 전무

님, 한독 임상 연구실 현복진 상무님, 휴온스 윤상배 부사장님 등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시고 MA (Market Access), CR (Clinical Research), MKT (Marketing)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약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이번 여름 방학에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A5: PPL은 학기 중에는 정기세션 및 제약 산업 교육을, 방학 중에는 제약 회사와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하계 방학에는 안국약품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3월 중순에 안국약품 토탈 헬스케어 부서와 대면 미팅을 진행했고 ‘건강 기능 식품 신제품 기획’을 주제로 확정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저희 조는 MZ 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반려동물을 타깃했습니다. 안국약품의 눈 건강을 위한 건기식 ‘토비콤’과 견주들 사이에서 유명한 ‘오큐글로’의 장점을 섞어 주성분 및 함량을 구상했습니다. 반려견의 ‘기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요 경쟁제품들과 각종 논문을 바탕으로 주성분과 함량을 정했습니다.

제약마케팅 학회 PPL에서 활동중인 이진우 학우

컨셉 단계에서 ‘약대생과 의사
가 협업’ 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검
토한 것을 큰 줄기로 잡았고 반려견
의 건강은 약대생, 의사, 안국약품,
보호자 모두가 기여한다는 ‘모두가
채운 wonder-full’ 이라는 컨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단계에서 두 번 정도 안
국약품에서 중간 발표를 통해 피드
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기획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집중력 강화 젤리’ 가
1위, ‘반려견 눈 영양제’ 가 2위,
‘단백질 건기식’ 이 3위를 차지
했습니다.

노션(Notion) 유료 계정을 쓸 정도
로 필요한 자료가 많았고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업무량
이 많았습니다. 이번 안국약품과의
기업연계는 사업개발의 성격이 훨
씬 강해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
가?’ 라는 질문에 회사를 설득시키
기 위해 동물 시험 및 동물 병원진
료기록 등 다양한 수치들을 바탕으
로 근거 중심적인 기획에 힘을 쏟았

습니다.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
haustive)하게 자료를 구성하고 다
양한 마케팅 툴을 바탕으로 논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에 익숙해 회
사와의 소통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에서
중간 피드백을 받을 때 야심 차게
준비한 내용이 미지근하거나, 좋지
않게 평가 받으면 옳은 방향으로 가
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
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밤샘 기획을
진행하여 괜찮은 기획안이 만들어
지면서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와 제
겐 행복했던 5개월로 남았습니다.
얼른 시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
네요.

**Q6: 정말 알찬 방학을 보내신 것 같
아요! 그 외에도 방학 때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A6: 졸업 여행팀에 속해 5학년 졸
업 여행 기획에 참여 했습니다. 방
학 시작 하자마자 5학년들은 강릉
으로 향했는데요, 인생 최고로 즐겁
고 낭만 있는 졸업여행을 다녀왔습

니다. 꼬막비빔밥과 해물 순두부 찜
뽕, 그리고 밤바다에서의 불꽃놀이
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말고사
직후여서 그랬을까요. 드디어 미쳐
버린 5학년들은 밤새 광란의 폐창
을 하다 목이 다 나갔네요.

**Q7: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1,3,4학년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이
나 5학년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7: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진로
를 탐색하는 것만큼 학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연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핵심은 ‘약대생다운’ 점들이었습
니다. 즉, ‘약학적인 지식을 바탕으
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기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MECE’ 하게 자료를 구성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전
제로 약학적인 지식 및 해석들이 더
해진다면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극
대화하여 제약산업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학과 학우들의 방학 나기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은솔 학우



▲ USC에 참여한 학우들(가장 오른쪽이 김은솔 학우)

Q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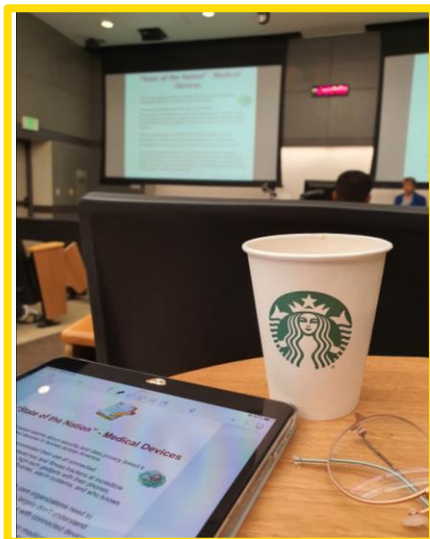
A1. 안녕하세요. 약학과 18학번 김은솔이라고 합니다.

Q2. 이번 여름에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2: 3학년 때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나 활동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A3: 여러 분야 (science, clinical, regulatory, marketing)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의 강연을 듣고 직접 약국과 병원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의료와 약사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은솔 학우



Q4: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LA지역을 많이 여행하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A4: LA지역에서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기대했던 장소들이었고 디즈니 ost와 함께 터지는 불꽃놀이와 다양한 영화의 세트장을 구경했던 스튜디오 투어가 인상 깊었습니다.

LA 이외 지역에서는 그랜드캐년을 여행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인데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5: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오신 것 같아요. USC에서의 수업도, 여행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5: USC 글로벌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준비로, 후에는 실습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다면 미국 동부 여행도 해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Q6: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종강 직후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이후엔 공장 실습 때문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종강을 약 2주 앞두고 있는데, 남은 방학 동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A6: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종강 직후부터 바빴던 만큼 남은 2주 동안 잘 쉬려고 합니다.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후배들이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USC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7: 생각보다 비용은 들지만 미국의 약학대학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보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 미국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Pharmparazzi

포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약학과 타임라인



이번 학기에 무려 10번의 경기를 치른
차대의 Real Madrid, FC 공차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짹!

12시 30분에 시작해 6시 30분에 끝난
19학번의 약학 실습 시간 단체 사진입니다.
유독 길었던 실습에 지쳐 다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 갔다고 하네요.



예방약학 수업이 끝난 후
물총을 들고 설운 체육공원에 모인
19학번들의 모습입니다.

컬러팀 vs 블랙팀,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 어느 축제보다 시원했던 차약 19 워터밤!



P호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harmparazzi*

약학과 타임라인



18학번 선배님들의 실습시간 사진입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약을 조제해봤다고 하는데요.
너무 멋지네요!



공강을 즐기는 20학번 학우분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공강은 해솔마당에서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해 보이는 저 농구공은 과연 골대를 통과했을까요?
방과 후 다같이 농구를 즐기는 20학번.
마치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ㅎㅎ



방구석 여행은 그만! 유럽여행 취재기



18학번 박혜린 학우

1. 많은 여행지 중에 유럽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대학 졸업 전에 유럽 여행 다녀오기였습니다. 18~19년도에 PEET 시험을 쳐서 약대에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여행을 갈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5학년 여름방학이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방학이고, 해외여행 관련 규제가 슬슬 풀리고 있던 시점이었어서 이번이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와 시험 기간에 치이던 중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예약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2. 여행 코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Tip

'워너고 트립'

계획 세울 시간이 부족하면 세미패키지 이용하기! 숙소와 단체버스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 최애 국가 스위스, 특히 인터라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입니다. 특히 인생 첫 패러글라이딩이 스위스라는 점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아래로 하늘 위를 날아다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인 융프라우에도 올라갔습니다. 한국인한테는 신라면을 공짜로 제공해주는데, 눈 쌓인 정상에서 먹었던 컵라면이 정말 맛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위스는 물가와 교통패스가 비싼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가장 짧은 여행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써서 훌쩍 줄어드는 통장 잔액이 아주 인상 깊었던 점으로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만 마셔도 행복했던 스위스여서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스위스의 절경

Photo Studio

4. 여행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프랑스 여행 중 동기와 즉석에서 만나 이틀 동안 함께 여행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여행하고 있던 동기가 SNS를 보고 연락이 와 함께 디즈니랜드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지 자체는 프랑스가 제일 별로였는데 잠깐이지만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야경

Photo Studio



5. 유럽 여행 중 코로나로 인해 불편했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같이 다니던 동행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같이 다녀서 한국에 못 돌아올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단체 버스를 이용한 많은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 번씩 아팠고, 이탈리아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나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음성이 나와 귀국할 수 있었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동행을 구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술기센터의 개소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5월 11일, 과학관 3층에선 더 나은 임상 실무교육 경험을 위한 임상술기센터를 여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약학과 재학생과 교수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임상술기센터의 장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상술기센터는 오는 6년제 커리큘럼 대상의 재학생들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실무실습 중심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교육을 받게 될 우리 본교 약학과 재학생들도 알 수 있게 심미경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약학대학 학생들의 임상술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약학대학에는 지역약국 실무실습과 병원 원내 약국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실습약국과 병동 약국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술기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곳은 술기센터로 병동약사로서의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서 임상술기센터 개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보통 대부분의 약학대학에 실습약국을 갖추고 있지만 병동약국을 시뮬레이션한 술기센터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약국은 대부분은 원내 약국 및 원외 약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외국처럼 클리닉 약국이나 병동약국 세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없지만 향후 외래약사나 병동약사의 업무가 임상약사의 직무역량강화 전문약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강화가 될 예정이므로 학생들도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선도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술기 역량강화, 특히 병동약

사 및 외래약사 업무 강화를 위해 술기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 센터에는 어떤 실습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각 장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임상술기센터는 병동 세팅과 유사합니다. 성인 환자 실습모형, 모형 마네킹, CPR+AED 교육용 세트, 응급 카트, 인슐린주사 실습모형, 옥시미터, 자동 전자동혈압계, 환자감시 모니터, 심전도계, 혈당계 및 시험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스틱, 폐활량 측정기, 네블라이저, 산소마스크, 휴대용 석션기, 사혈기, 시린지펌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의 satellite pharmacy와 유사하게 소형 약품용 냉장고 약품보관장, 컴퓨터,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약학대학에서는 최초로 EM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실무실습 전 EMR 환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센터가 열리는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요?

A. 임상술기센터의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부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가져오고 관련하여 기안을 올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임상술기센터의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4년제 커리큘럼은 이미 배워야 할 내용으로 시간이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교육내용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약물치료학에서 조금씩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통합 6년제 커리큘럼에서 예비실무실습이나 약물치료학 실습 교과목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차약 앙케이트



채지은 기자



1 약학과 취미부자는 누구인가요?



18 이진우 (25%)

룸메이트한테는
항상 미안하죵



19 김민정 (61.5%)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거
인정~? 같이 재밌는 취미
만들어요~!



20 신비 (57.1%)

바이올린, 베이스, 베이킹,
프리다이빙, 풋살, 비즈공예,
클라이밍 etc.. 같이 취미해욤



22 이채원 (28.6%)

나도 모르는 내 취미.. 열심히
살아볼게요



2 가장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기는 누구인가요?



18 이건호 (37.5%)

저랑 같이 바벨 들어 줄
사람 구합니다



19 황준 (69.2%)

저랑 같이 운동해요~



20 김재현 (42.9%)

예? 저요? 저는 그냥 바벨이 거기
있어서 들었을 뿐인데요



22 정종인 (100%)

같이 밀고 당겨올
ㄸ (< >) >



3 가장 즉흥적인 동기는 누구인가요?



18 기세운 (25%)

계획? 모르겠고
일단 가보자고요 !-!-!



19 채지은 (30.8%)

내일 울릉도 갈 사람
연락줘~~



20 김예인 (28.5%)

너, 마음에 든다?



22 장준원 (42.9%)

나름 mbti는 "j" 예요



4 MBTI를 가장 잘 믿는 동기는 누구인가요?



18 박혜린 (37.5%)

엠박사 박혜린입니다~
MBTI 교정이 필요한 분들
저를 찾아주세요^^
ESTP 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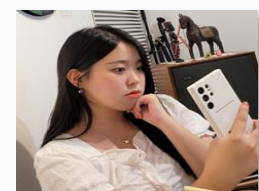
19 정찬희 (23.1%)

mbti 과몰입
줄이겠습니다..ㅎㅎ



20 안지우 (42.9%)

MBTI는 과학입니다



22 신선 (28.6%)

1등 뿌듯해요 ㅎㅎ
mbti는 과학이다 & -ESF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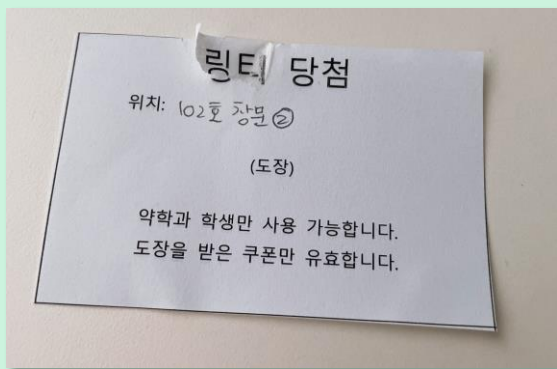
차약이의 동심 찾기

“차밍위크(CHArming week)”

지난 2022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차밍위크(CHArming week) 행사가 진행되었다. 차밍위크란 약학대학 12대 학생회 'CHArming'이 선후배와 동기 간 교류를 위해 기획한 행사로, 크게 세 개의 게임이 준비되었다. 과학관을 포함한 차의과학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즐길 거리와 상품이 풍부했다고 하는데 같이 살펴보자.

차밍위크의 시작! “보물찾기”

아침 일찍부터 학년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무언가를 찾아 과학관을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다. 5월 18일, 과학관에 숨겨진 선물 쪽지를 찾는 것으로 차밍위크 행사가 시작되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약학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쪽지는 강의실 책상 아래, 프로젝터부터 과학관 복도와 계단까지 다양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찾은 쪽지는 학생회 SNS로 인증한 뒤, 도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준비된 상품은 교내 카페 아메리카노 교환권과 링티였다. 선물 쪽지는 인당 한 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쪽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경품과 상관없이 '보물찾기'를 즐기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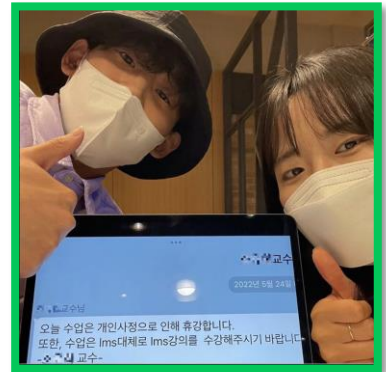


▲ 102호 창문에 숨겨져있던 선물쪽지의 모습

차약이들의 창의력을 보여줘! “MBTI 사진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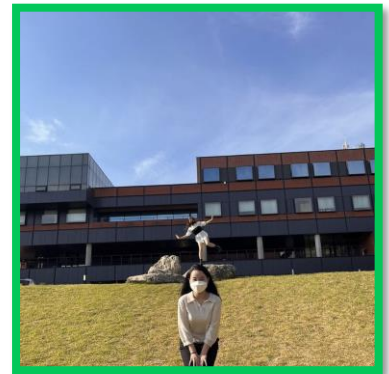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차밍위크 중 진행된 사진대회이다. 신청자들의 MBTI를 조사하여 가장 궁합이 좋은 성격유형끼리 2인 1조로 팀이 되어 주제에 맞는 사진을 제출했다. 제출된 사진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차약이 SNS 계정에 게시되어 좋아요 투표를 받았는데,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사진찍기”, “가장 큰 것과 사진찍기” 이다. 다음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 별 1등을 한 사진들이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교수님의 영상강의 대체공제’
채지은(19, ESFP), 김범준(22, ESTJ)

“가장 높은 곳에서 사진찍기”



‘하늘같은 선배 머리위에 올라 탄 후배’
강민지(20, ISFP), 최서진(22, ESFJ)

“가장 큰 것과 사진찍기”



‘멀티버스에 간 차약인’
이소연(19, ENFP), 김예인(20, ENTP)

차밍워크의 하이라이트 “BINGO 게임”

5월 25일, 차밍워크의 마지막 순서이자 폐인 이벤트인 BINGO 게임이 있었다. 사전에 신청자를 모집했고, 5인 1팀으로 6개의 팀이 구성되었다. 먼저 과학관 102호에 모여 학생회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했다.

*게임의 규칙

팀 단위로 총 10개의 미션을 40분 이내에 수행한 후, 다시 102호에 모인다. 이후 완료한 미션들로 3x3 빙고 판을 채운 다음, 2 빙고를 먼저 완성한 팀이 우승한다.

*미션 목록

- 사진찍기

- 1 정문 앞에서 CHA 만들기.
- 2 도서관에서 백머리 유기화학 전공서 찾기.
- 3 약학과와 요정 찾기.
- 4 암벽등반 세 칸 이상 올라가서 사진 찍기.

- 현암기념관 중앙계단 계단 수 세기.

- 게임을 이겨라!

- 1 팔씨름을 이겨라.
- 2 일심동체 게임 3개 성공하기.
- 3 탕수육 게임.
- 4 인물 게임 성공하기.
- 5 병뚜껑 게임 성공하기.



▲ 게임 시작 전, 학생회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

학생회의 설명 후,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대한 많은 미션을 완료해야 게임을 이길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참가자 모두 학교 곳곳을 뛰어다녔다. 각 미션을 담당하는 진행자를 찾아가 조별로 이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미션을 모든 조가 성공했지만, '인물 게임'과 '약학과 요정 찾기'가 각각 두 조에 실패를 안겼다.



▲ 가장 어려운 미션 중 하나였던 '약학과 요정 찾기'를 수행하는 학생들



▲ 사실상 빨리 뛰기 미션이었던 '정문에서 CHA만들어서 사진찍기'

가장 빠르게 모든 미션을 수행한 팀은 4팀(19 송서영, 19 이민영, 19 임하정, 20 최웅재)이며 제한 시간보다 약 25분 빠르게 완료했다.

40분의 미션 시간이 지난 후, 참가자들은 과학관 102호에 모여 팀별로 빙고 판을 채우고 빙고 게임을 시작했다. 미션을 호명하면 판을 한 칸씩 채워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2 빙고를 완성한 첫 번째 팀이 나왔다. 이어서 다른 팀들도 빙고를 완성하며 게임이 마무리되었다.



▲ 마지막 빙고게임까지 1등을 한 4조의 모습

취재기자인 본인도 해당 행사를 돕기 위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처음으로 직접 같은 장소에 모여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공식행사라는 점에 감회가 새로웠다.

차약이 새약기 필수코스! 차약이 친해지기 프로젝트

벚꽃과 함께 2022년 봄에도 차약이 친해지기 프로젝트, 일명 '차친프'가 찾아왔습니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학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친프' 또한 3월 16일~18일, 4월 2일~8일로 진행 일정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약이들이 친해지기에 성실히 임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차약이들이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 가장 많이 한 Mission 스티커 사진 찍기



▲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차약이들



👑 차친프 1등 : 11조

(19 정찬희, 19 최민준, 20 유혜린, 20 박주원, 22 오서현, 22 이예나)

1등의 기록들

성공한 미션 수 : 12개(모든 미션 완료)

미션 성공 일자 : 22.03.18

참여한 인원 : 5명

2022 차친프 통계

👑 가장 많이 한 미션(각 5팀이 수행)

'서로 초상화 그려봐', '카페 가기', '롤링 페이퍼 쓰기', '스티커 사진'

👑 각 조가 가장 빨리 수행한 미션

(3월 18일에, 미션을 수행한 모든 조가 완료함)

'조원의 취미 즐기기', 'Zoom 맥주', '카페 가기', '스티커 사진'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프랭크버거

위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80 황금프라자 1층 107~108호

대표메뉴: 프랭크버거_3,900원(SET_7,400원)

평점: ★★★★★☆

가장 기본 메뉴인 프랭크 버거는 100% 순살 소고기 수제 패티와 양파, 토마토, 양상추, 소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즙이 흐르는 패티와 부드럽고 고소한 번이 조화가 잘 돼서 입맛을 돋워줘요. 다만 기름기가 좀 있고 단 편! 바삭바삭한 감자튀김을 밀크셰이크에 찍어 먹으면 단짠단짠 환상의 조합~ 세트 메뉴 보다는 단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70

대표메뉴: 숯불닭갈비 14,000

총평: ★★★★★☆

평소에 주로 먹는 닭갈비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맛의 닭갈비를 먹고 싶다면? 이 음식점을 추천합니다! 순한 맛과 매운맛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순한 맛은 간장 베이스, 매운맛은 고추장 베이스예요.



계곡장군

두 가지다 간이 세지 않은 편이라, 매운맛도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소스 맛과 불향이 오묘하게 어우러져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초벌구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익혀 드실 필요 없어요. 또한, 3인분을 시키면 추가로 1인분을 추가로 준다는 사실! 양과 맛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



문릿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107호 문릿

대표메뉴: 문릿까르보나라 12,800, 등심스테이크 27,900

총평: ★★★★★★

‘까르보나라’가 아닌 ‘문릿까르보나라’ 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는, 처음 본 비주얼의 파스타예요. 육즙을 가득 담은 수비드 조리 통 삼겹살, 달걀노른자와 치즈를 소스에 섞어 먹으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이 가득 퍼지네요. 확실히 일반 까르보나라 보다 업그레이드된 맛이에요. 스테이크의 등심도 통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수비드 한 것이라 육즙을 그대로 담고 있어 풍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먹으며 주인장의 정성과 노력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함께한 동기나 후배님께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
감사했던 점,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을 편지로 전달하는 시간

익명의 편지



20학번 차약이에게



To. 20학번 모든 친구들에게

1번 강민지

민지~항상 짓궂게 반말로
장난쳐도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번 김치윤

수고했다 이세상 최고

2번 권정혁

혁혁이 형 대구 갔을 때
시간 내서 나와줘서
고마워요

7번 목현승

덕분에 학교 다녀요.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3번 김소정

소정 누나 못난 동생 챙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참 많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8번 박주원

우리 엄마 같아요. 웃김 커

4번 김예인

예인이 형 저는 남자 안
좋아해요

9번 배지수

작년에는 따뜻했는데
이맘때쯤에 근데 지금은
흐음~출지만 눈 와서 너무
저아요

5번 김재현

재현이 형 관찰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많이 모냈지만
못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10번 신비

나 뵈야~ 나 뵈야~ 이리
날아오너라~



20학번 차약이에게



11번 안지우

고마워요 누나 가끔
무뚝뚝한 건 미안하지만
그게 나라우

18번 이재연

형~ 나 좀 놀아줘

25번 최다원

다원동아~
얼굴 좀 보장

12번 양상오

상오형 약통 찢어준 거
다나왔어요 나 공부 좀
시켜줘용

19번 이재현

나의 남자

26번 최용재

커서 용재 형이 될래요

13번 유병훈

내 친구 병훈아
이빠이팅
뽀레버~~~
영원하라

20번 이종상

종상이 형~~ 공부
재미없어용 놀래용

27번 최인영

가장 존경하는 누나

14번 유채령

ㅋㅋㅋ 응~ 가을뭇가

21번 이영현

이형영~~ 어쩔티비

28번 한규리

규리규리 체고
약물학 요약단 ㄱ

15번 유혜린

면접 때 핫팩 준거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긴장이 풀렸어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누나
꼬로록~~~금지

22번 정보민

누나~나 좀 놀아줘

29번 한승혜

똥. 추억이 참 많아요
시험기간에 화내지
말아요 ...

16번 이상천

형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23번 조한규

가장 존경하는 형

30번 황선민

ㅋㅋㅋㅋ
택시 타고 가~

17번 이서현

_

24번 지수경

썩<- ->썩

To. 최인영

인영아 한 학기 동안 룸메이트로
지내서 너무 좋았어! 2학기 때
자취를 하게 돼서 아쉽지만 자주
자주 만나자 :) 고마웠어!

19학번 차약이에게

To. 임하정

19 하정언니!! 덕분에 재밌고 즐거운
한학기를 보냈엉~~ 앞으로도 재밌게
놀자구!!!!!!!!!! 항상고마워 ♡

To. 정찬희

'사랑은 허구다...!'
—정찬희 선배님께.
언젠가 true love를 만나길
기원합니다.

To. 김소정, 이소연, 정윤지

전약제 기획단원 소정 소연누나
윤지누나 모두 파이팅~빨리
끝내버리자~~

To. 장세용

19학번 학생회장 세움아~~~전약제 종
기획단장까지 맡으면서 맨날 하루 종일
회의하고 엄청 바빠 보이는데 넌 정말
대단해...앞으로도 좀만 더
파이팅하자~!!!!

To. 김민정

민정티브이~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고시 생활하다가
학교 들어와서 절없는 후배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부일까 활동일까 운동일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방법으로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고 싶어요. 다만,
배풀어 준 마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학번 차약이에게

T.O. 김은솔

우리 18학번 차아기의 영원한 과대 은슬아~! 지금까지 짝 과대
로서 교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와 소통해주시어 정말 고마워. 지
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18학번의 과대가 되어줘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인가?~~~~~?~~~~~? 그러릴 없어~~ 

22학번 차약이에게

To. 안은설

22차약이 대표 패피 안.은.설
너랑 있으면 그냥 행복해ㅎㅎ
우리 오래보자~~~

To. 오서현

오서현~~~내가 진짜 너처럼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착한 걸 넘어서서 진짜 선해 ㅠㅠ💕
집 갈때 문자 보내주는 것도 너무 귀엽구..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두
본받고 싶었어ㅎㅎ 우리 오래오래 보자~~

To. 이예나

이예나!! 나 누구에게 ㅎㅎ 너랑 있으면 왓지
모르게 편해.. 우리 운명인걸까ㅎ?
무슨 걱정이냐 고민 생기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게 되더라! 나도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볼게! 우리 오래오래봐용

To. 김규민

규민아~ 형도 선배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열어 놓고 있으니 모르
는 거 있으면 나도 잘 모르지만 함께 고민해보
자꾸나. 조금 부족한 선배여서 항상 미안하다

차팜인 에세이

약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22학번 김동현-

올해부터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과에 첫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뜻뜻한 새내기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좌충우돌 약학과 적응기, 살짝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온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진짜 싫었는데 결국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똑바로 일어도, 거꾸로 일어도 똑같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풍별 우영우’처럼 임팩트 있는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저는 특이하지도,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우수하지도 않은 포항에서 온 22학번 김동현입니다.

포항과 포천 한 글자 차이이지만 350km 떨어져있는, 자동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포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4시간 만에 도착한 포천. 한 글자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22살 늦깎이 신입생이라 긴 입시를 끝내고 낭만의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새로운 환경에서 오롯이 혼자 책임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저것 살림도구를 사고 여기저기 거리를 익히고 있을 때 즈음 카톡이 왔습니다. 뽀 선배님의 카톡이었습니다. 입학 축하한다고. 여기 생활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곧 뽀 모임이 있을 거라고 공지해 주셨습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선배님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낯선 느낌을 잠깐이나마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 낯선 여기, 나 혼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개강 첫 날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삼 일째 되는 날부터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끼리 인사할 기회도 없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뒤늦게 수업에 합류하게 되었던 저는 자연스레 혼자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있는 저의 생활이 제가 상상했던 낭만의 대학 생활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험 수업을 하게 되며, 동기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동기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약학과 22학번 동기들



점차 학교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 즈음, 제가 가입한 동아리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뵈는 선배님들 이외의 선배님들은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동아리라는 활동이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주로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였는데 선배님들과 1학년 동기들과 함께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운동 이후에는 회식도 하며 학기 중간중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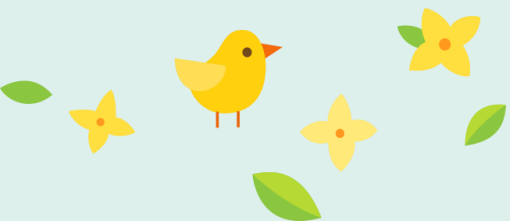
약학과 동아리 사진 (공차)



약학과 동아리 사진 (꽃방메이저)

동아리 이외에도 학생회에서 주최한 차친프와 차밍워크같은 많은 활동들에서 선배님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선배님들도 있었고, 새롭게 만난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포천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로 괴로웠고 3월이지만 추웠고 혼자라서 씁쓸했습니다. 학기 초에 느꼈던 모든 것이 낯설었던 기억은 어느새 동기들과 수업을 듣고 함께 몸부딪히고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며 편안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앞선 길을 걸어가는 선배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고, 코로나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낸 지금, 포천은 제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친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포천과 포항의 물리적 거리는 350km이지만, 제 마음속 거리는 350m도 되지 않습니다. 포항과 포천을 돌림자가 같은 형제처럼 느끼게 해준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저의 포천 생활기를 마무리합니다.



차팍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팍인 9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팍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카카오뱅크 3333-23-3713704 (예금주: 이승연)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9155-6150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원재웅
chapharmin@naver.com / 010-2418-5798

